

제주교통의 미래를 생각한다

2020년 9월 25일

이 창운

한국교통대학교 교수
前 한국교통연구원장

Contents

- @ 제주교통의 어제와 오늘
- @ 미래의 제주교통, 어떻게 가꿀 것인가?
- @ 교통환경의 미래는?
- @ 연륙교통 이대로 좋은가?
- @ 그밖의 쟁점 몇가지

제주교통의 어제와 오늘은?

점점 막힌다



과거는



미래도?



서귀포를 아시나요



밀감향기 풍겨오는 가고 싶은 내고향
칠백리 바다 건너 서귀포를 아시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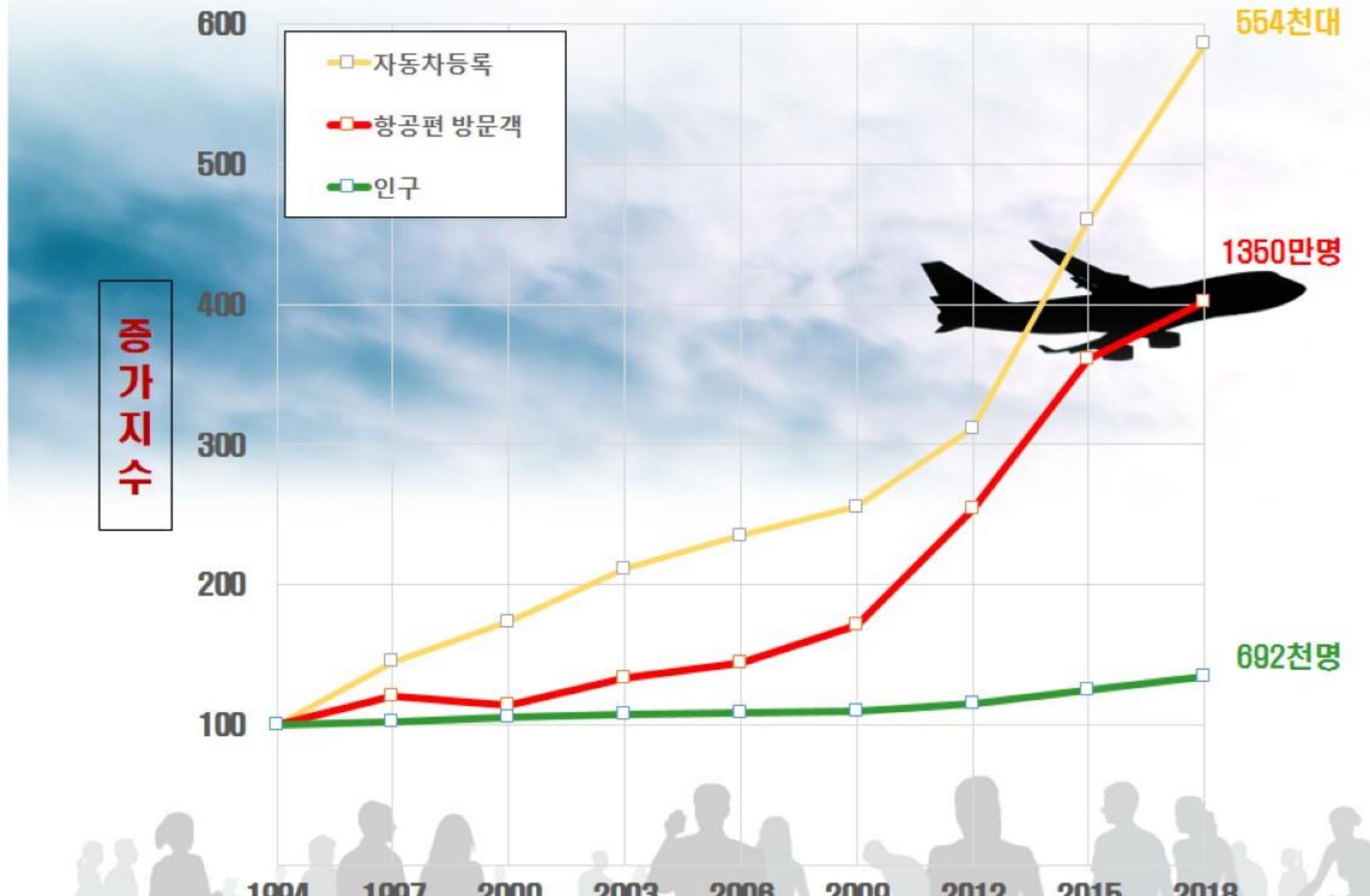


제주 대중교통의 태동





제주 인구와 항공편 방문객



통계로 본 제주교통

- **자동차 급증** : 지난 10년간 연평균 7.5% (전국 3.2%)
 - ✓ 1인당 자동차대수 : 0.76대 (전국 0.44대)
 - ✓ 제주시내 주요 도로 첨두시 차량속도 15km/h 미만
- **대중교통분담율 전국 최저** : 버스분담율 10% (광역지자체 26%)
- **교통사고** : 10만명당 사망자(5년평균) 17.8명 (전국 10.5명)
 - ✓ 사망자의 렌터카 비중 11.3% (렌트카 등록대수는 6.7%)
- 제주여행 수단분담율 : **렌트카** 76%(버스, 승용차, 택시, 전세버스 각 8%내외)
- **교통혼잡비용** : 대략 연간 5000억원
- 점증하는 **관광통행** (2025년 도민반, 관광객반)



미래의 제주교통 어떻게 가꿀 것인가?

스피드 혁명



574 km/h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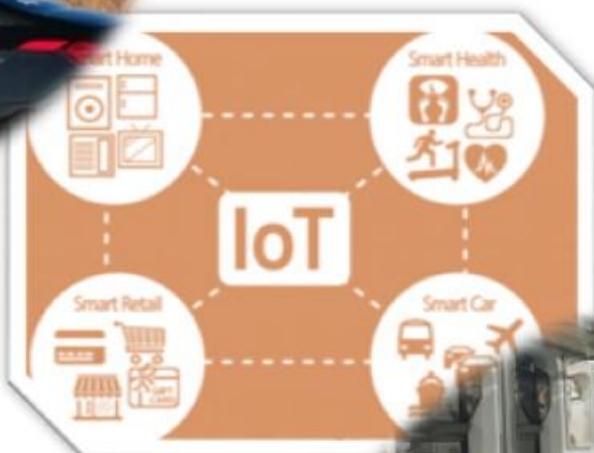
603 km/h



정보통신혁명

500억 디바이스 연결 IoT시대

4차산업혁명 핵심인프라 5G





자율주행
(Automation)



전환경차량
(Electrification)

 **Transport 4.0**



스마트 모빌리티
(Mobility Integration)



빅데이터
(Big Data)

자동차 꿈의 실현







출처: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QwnT1jqxw8&feature=youtu.be>



출처: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QwnT1jqxw8&feature=youtu.be>



모빌리티 개념의 변화



소 유

공 유

거점 to 거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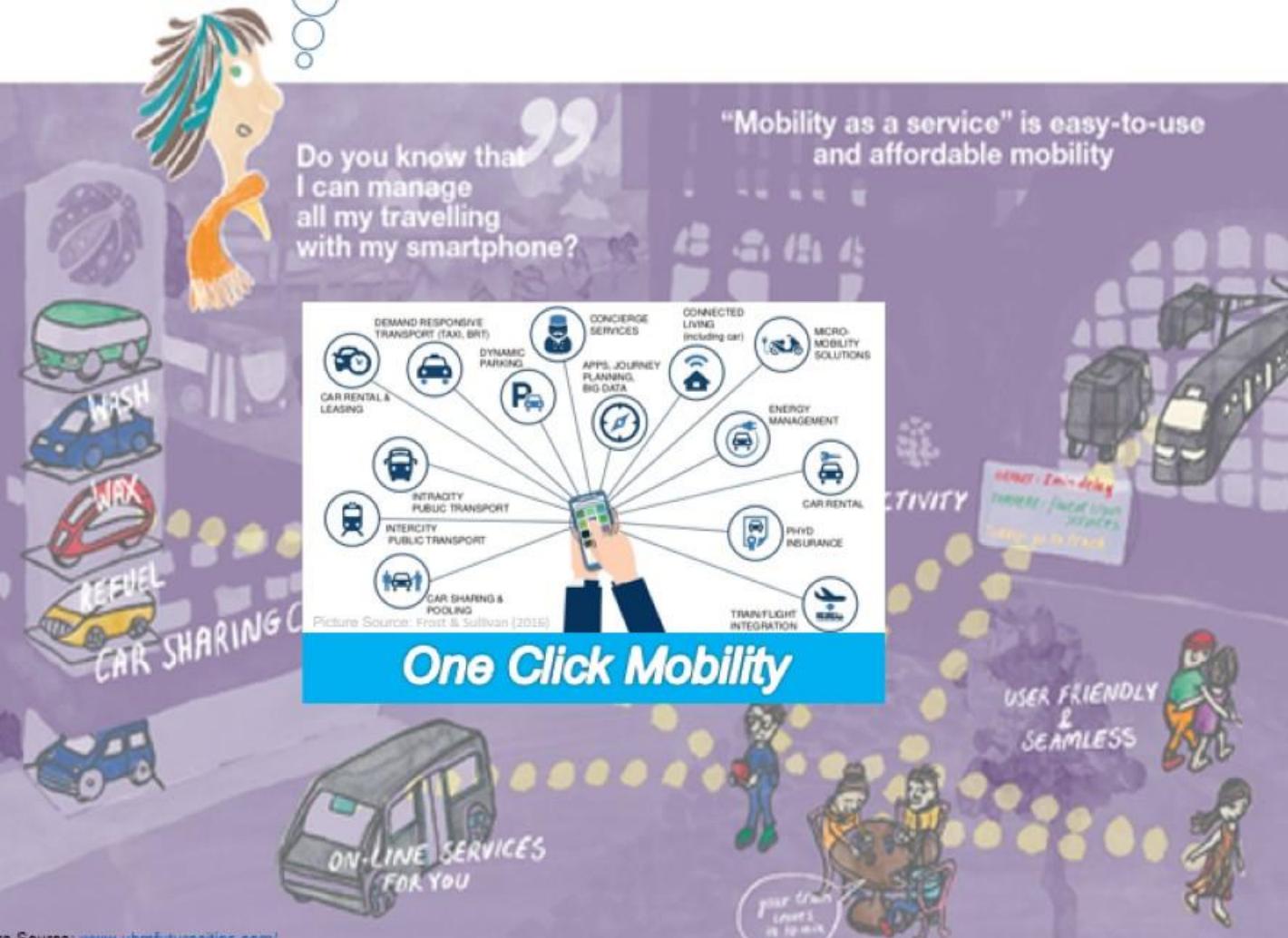
Door to Door
(First/Last Mile)

경직성 (Scheduled)

유연성 (On-demand)

One Click으로 스마트모빌리티
세상이 열어요. 나도 운전기사와
비서가 생겼다고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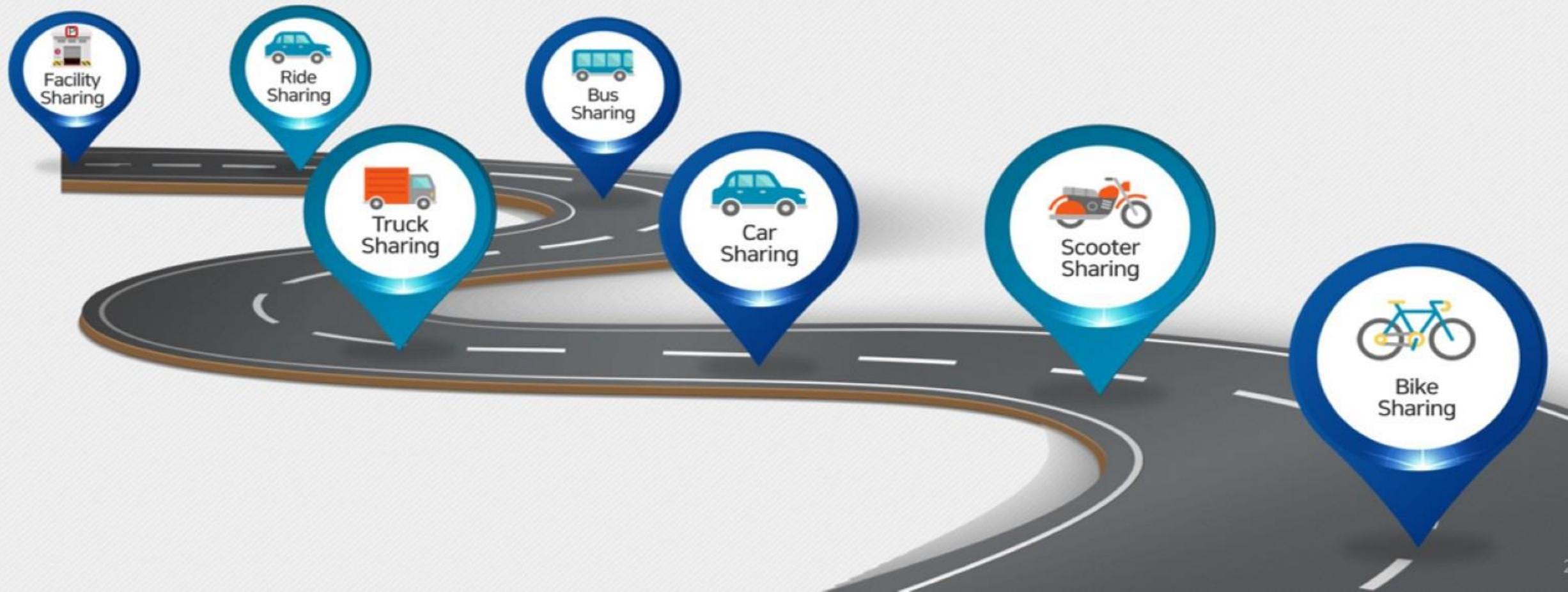
스마트 모빌리티 : 모든 교통은 내 손 안에



- 완전 자율주행차 이용이 보편화된다면?
-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카쉐어링이 있다면?
-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자전거와 PM이 있다면?
- 항상 통행코드를 해주는 자상한 가이드가 있다면?

공유경제와 교통

1 : 10



한라의 장한 기상 바다로 뻗고



YONHAP NEWS

.천혜의 자연. .평화의 섬.



태평양 푸른 물결 감돌아 드는



제주인에게 발전이란?



사진출처: 제주특별자치도, 사진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

두마리 토끼 ?

- 신비의 섬 vs 성장의 섬
- 천혜 자연의 청정 환경 vs 첨단 문명의 인문 환경
- 컨트리의 순수성 vs 도시 집적의 편의성
- 대한민국 절해고도 제주도 매력 vs 초연결세상 Global Jeju Island
- 느림의 미학 vs 빠름의 실용성
- 곡선의 여유 vs 직선의 빠름
- S/W 첨단기술 운영 vs H/W 인프라

지향하는 미래는?

- 글로벌 경제활동이 다이나믹한, 인구 200만? 500만? 국제자유도시(홍가폴)?
- 아니면, 인구 100만 정도 소박한 천혜자연의 세계적 관광도시?
- 어느 경우이든, 제주자연. 제주환경. 제주사람. 제주문화. 제주경제. 가치를 높일 내일의 제주를 하나하나 가꾸어야

세계가 주목하는 제주 비전



100% 신재생에너지



100% 전기차

2030년 제주

‘Carbon Free Island’

제주의 교통은?

-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**제주다운 교통**으로
- 지속가능한 **관광발전 디딤돌 교통**으로
- 4차산업혁명시대의 **스마트 모빌리티 교통**으로
- 탄소제로와 교통 **사고제로 교통**으로

바람의 힘으로 가는 자동차의 꿈 전기차 메카 제주



무시못할 관광 통행(2025년 개략치)

- 통행수 기준, 관광객은 제주도민의 50% 수준

도민 200만통행 (인구 100만 x 2통행/일)

관광객 100만통행(1일관광체류인구 20만 x 5통행/일)

- 통행거리(통행·km) 기준, 관광객과 도민은 동일, 반반 수준

도민 1000만 통행·km (인구 100만 x 2통행/일 x 5km/통행)

관광객 1000만 통행·km(1일관광체류인구 20만 x 5통행/일 x 10km)

- 이런데도 관광이 렌터카 등 승용차 위주(**현재 76%**)로 놔둔다면?

- 따라서, **관광통행 관리**로 관광의 대중교통분담을제고와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화 중요

제주교통의 틀은

- 기본적으로 ‘느려도 막힘없는’ 즐거운 관광교통

- ✓ 환경친화적이면서 제주관광의 가치를 확대할 기본적인 교통개념으로 발전

- 교통순기능으로, ‘빠른 속도를 보장하는’ 급행대중교통으로 Trunk Line

- ✓ 제주도일주 순환전철망 등 제주다운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상
- ✓ 제주공항과 제2공항, 제주시 도심과 서귀포 등 도내 주요거점 간 연결성
- ✓ 친환경 신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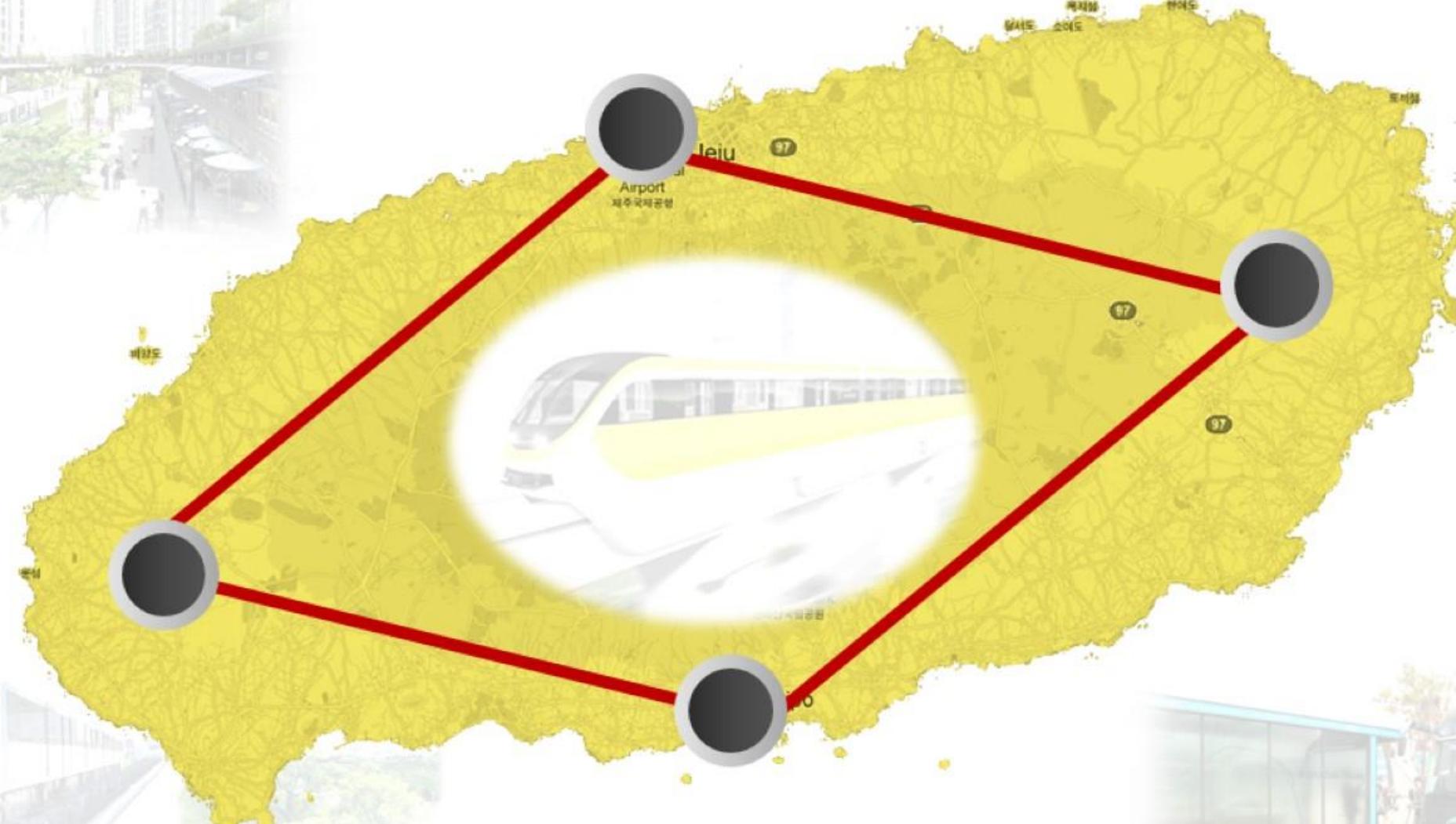
- 공급자가 아닌 ‘나(수요자) 중심의 One Click’ 스마트모빌리티

- ✓ 인공지능, 자율주행, 공유경제시대를 앞서가는 맞춤형 모빌리티로 주민과 관광교통의 시스템을 조성

느려도 막힘없는 & 여유로운 느림과 곡선의 미학



빠름과 직선의 실용성



Source: <https://www.google.co.kr/>

마침내 스마트모빌리티

- 다양한 교통수단이 결합 실질적 통합모빌리티 연계시스템
 - ✓ 버스와 택시, 렌터카와 관광버스, 자가용과 대중교통, 공용자전거, PM수단 등 자유로운 커비네이션
- 최선의 통행계획, 치밀한 통행가이드, 최적의 요금정산을 한꺼번에 선택
-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One Click 서비스
- 정부는 스마트 모빌리티시스템 개발 R&D 사업 등 추진
- 제주의 지리적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시범사업 유치

제주교통의 큰 틀을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허브

- 빠름과 느림의 조화 시스템

-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Hub연결 괘속대중교통(Trunk Line)
- 막힘없이 흐르는 느긋한 관광교통(일주도로)

- 4대 거점에 스마트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여 Hub & Spoke 교통네트워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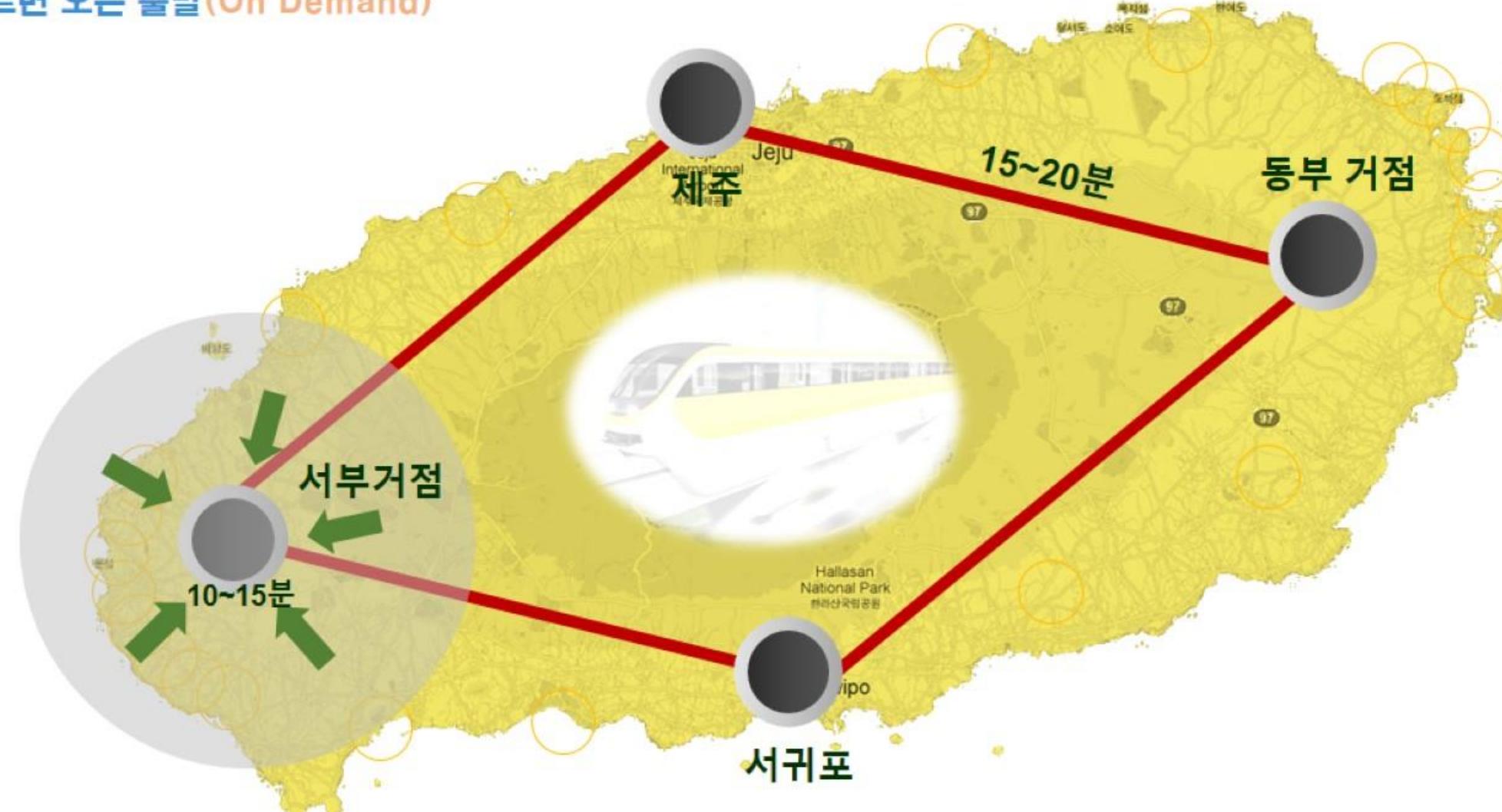
-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 추진 검토

- 허브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



全道 Door to Door 최대1시간권 스마트모빌리티 허브

- 매우 빠른 간선(High Speed) 트랜짓 : 허브 to 허브
- 아주 편한 환승(Comfortable Transfer) : 허브 to 스포크
- 부르면 오는 출발(On Demand)



걸어서 행복한 제주

마을 올레길 사업으로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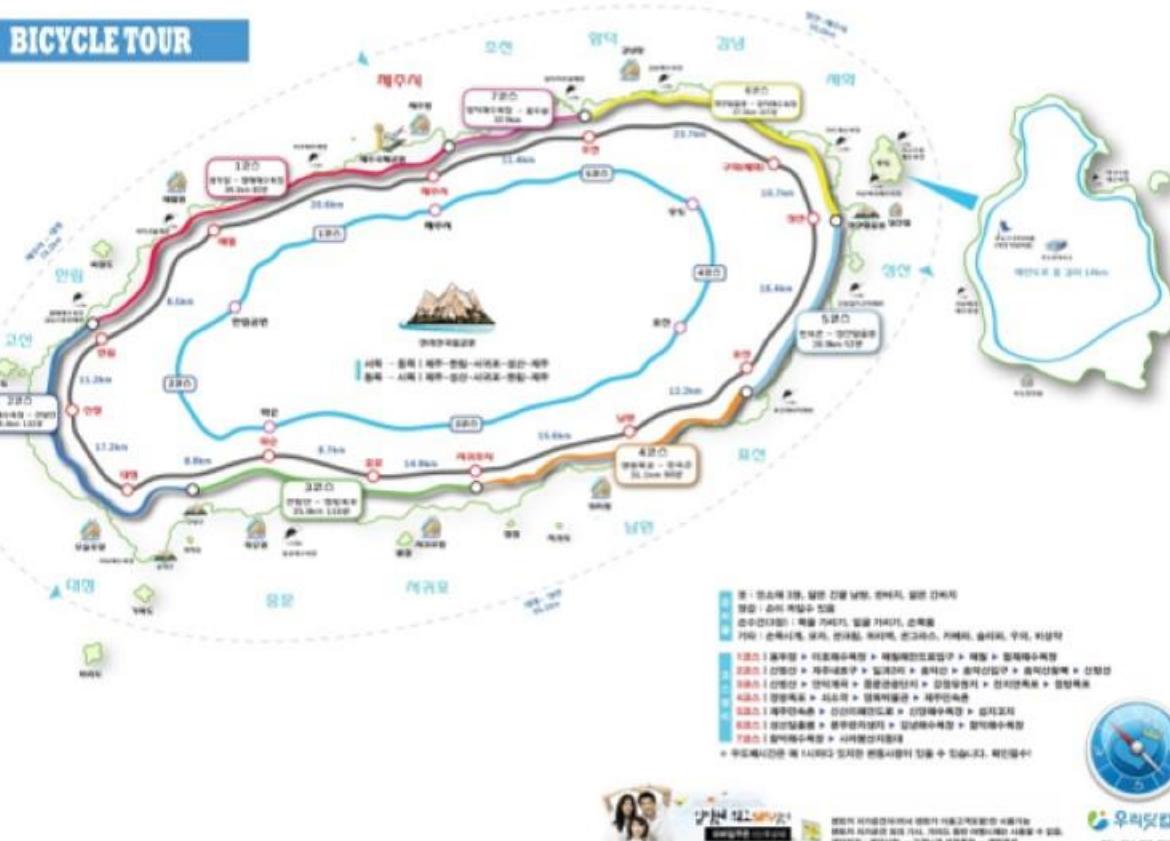
어디서나 누구나 타는 자전거

자유롭고 쉽게 타는 공유자전거(Public Bike)

연계수단 또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관광객과 주민이 공유

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전거 길 조성

BICYCLE TOUR



말은 나면 제주도? 몽골은 멀다



가보고 싶은 광장

제주의 상징 공장

사람이 사람을 구경하는 공간

야시장, 거리공연장, 제주방문 유명연예인 등 활용

언제든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 이벤트를 즐기는 공간



탑동의 광장기능 회복

제주/서귀포 종합경기장, 월드컵 경기장 등 활용?

상시 또는 행사 비수기 일시적 활용

또는 관광선수기 야간광장 등으로 운용



연륙교통 이대로 좋은가

악천후에도 입출도 일정을 기약할 수 있는 교통은

공항으로 느끼는 제주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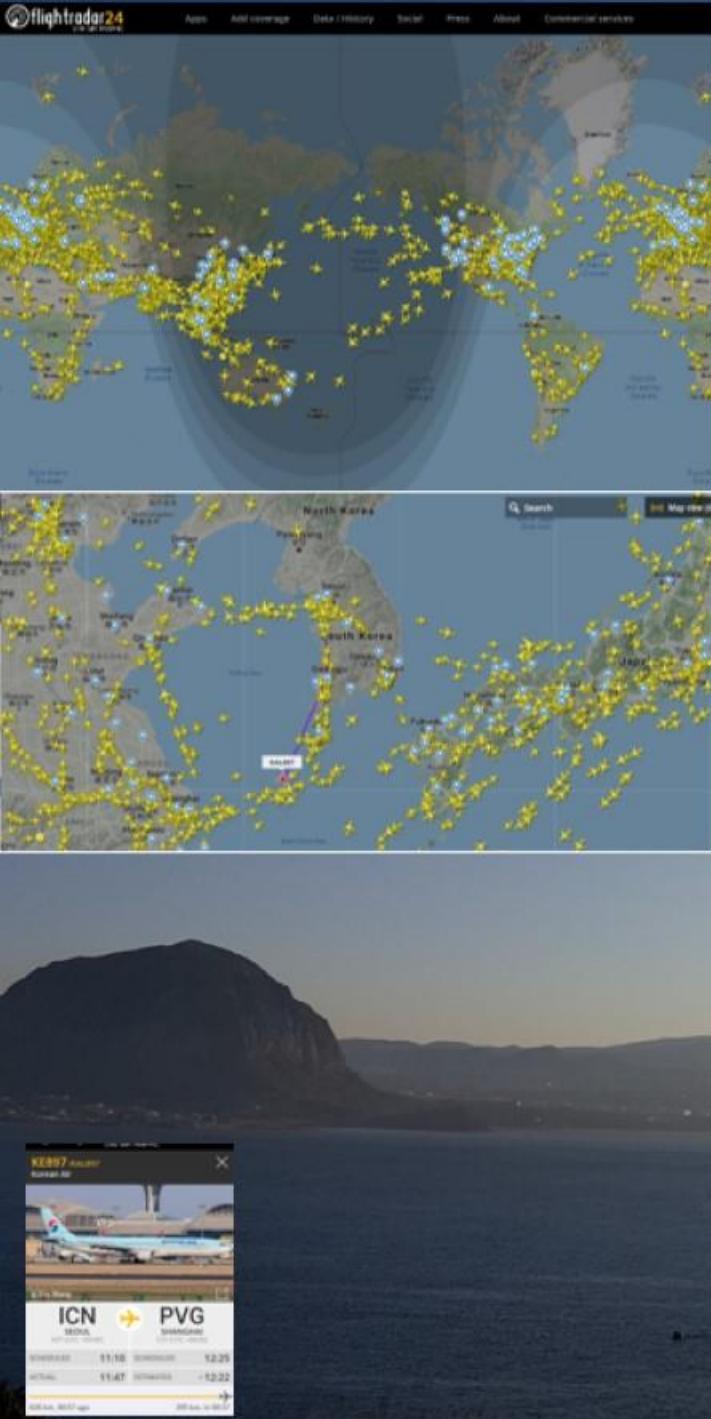


항공교통



- 항공교통은 제주발전의 생명줄
- 2공항 건설 논쟁은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
- 제주 섬에 Two Airports는 미래 제주를 위해 최적 대안인가
- 현재로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





제주 해저터널 구상



목포에서 제주 연결 (167km)

목포-해남(66km)

해남-보길도(28km)

보길도-추자도-제주(73km) 해저터널



한반도 해저터널 구상

3대 해저터널 제원

한·중

구간 341km(인천~웨이하이 기준)
332km(해저거리)

사업비 123조원(경기발전연구원 2009년 자료)

사업기간 10년 이내

주파시간 인천~웨이하이 1시간 35분

진행 상황 정부, 기술·경제적 타당성 검토
용역 중. 11월 중국 입장 나올 예정

비고 중국, 대만과의 연결 우선하고
북한 고립 우려해 신중

한·일

구간 222.6km(부산~쓰시마~이카~후쿠오카)
146.8km(해저거리)

사업비 92조원(부산발전연구원 2009년 1월
기초연구)

사업기간 약 10년

주파시간 부산~후쿠오카 1시간 정도

진행 상황 정부, 기술·경제적 타당성
검토 용역 중

비고 일부에선 일본의 '대륙 진출'을
도울 것이라는 거부감

제주

구간 167km(목포~보길도~추자도~제주)
73km(해저거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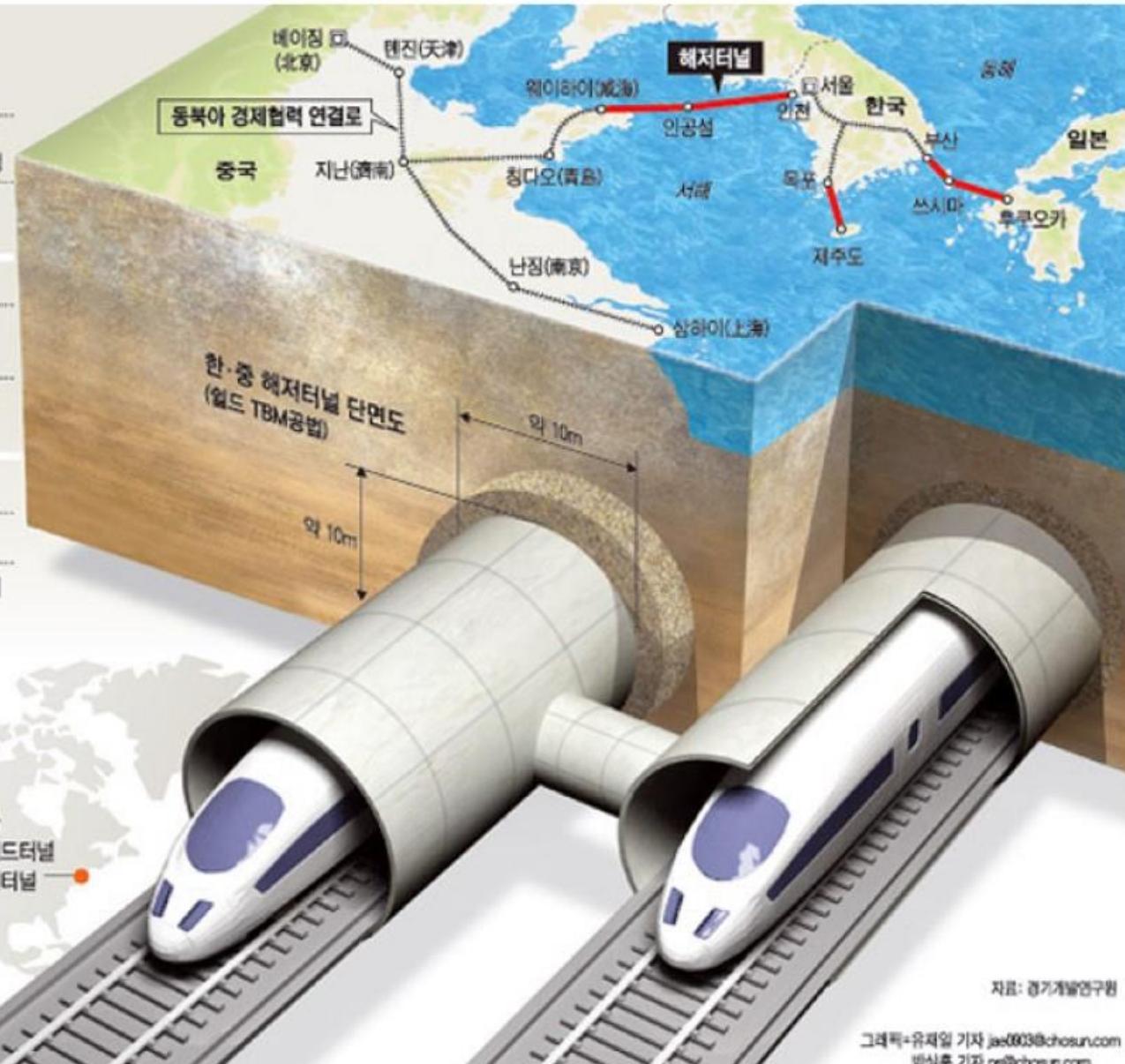
사업비 14조6000억원(교통연구원 2008년 12월)

사업기간 11년

주파시간 KTX로 서울~제주 2시간 26분

진행 상황 타당성 조사 진행 중

비고 제주도, 신공항 건설 우선이라며
소극적



건설·운영 중인 주요 해저터널

● 완공/건설중 ● 구상중

아일랜드~웨일스

유로터널(영국~프랑스)

● 외례순 터널(덴마크~스웨덴)

● 러시아~우크라이나

터키 보스포루스 터널

모로코~스페인

인도네시아
자바~수마트라

● 러시아~미국

미국

홀린드터널

링컨터널

러시아 본토~사할린
일본 홋카이도~러시아 사할린

일본 세이칸터널

일본 도쿄만터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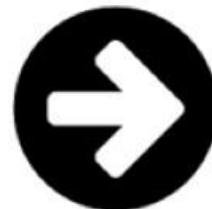
중국 본토~대만

중국 샤먼터널

자료: 경기개발연구원

그래픽=유재일 기자 jae003@chosun.com
백상훈 기자 pech@chosun.com

국가적 관점 新국가균형축 & 성장동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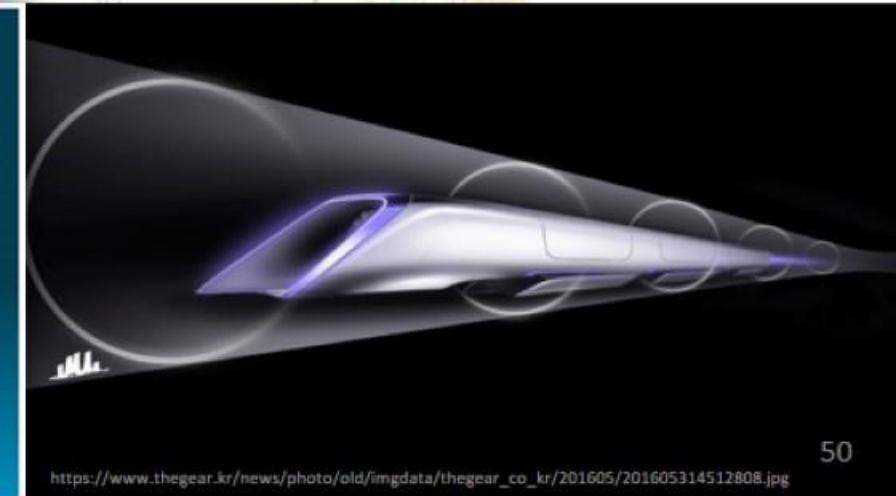


해저터널의 쟁점

- 해저터널은 안전한가?
- 공항건설과 병행 추진이 가능한가?
- 해저터널의 기술혁신과 건설비용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성은?
- 제주지역의 필요성만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성사될 수 있나?
- 제주인 삶의 질(QOL)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?

하이퍼루프는 대안인가

- 6-7분이면 바다를 건넌다(마하의 속도)
- 고속철도보다 건설비가 저렴하다(Elon Musk, 캘리포니아 경우 1/10)
- 안정적 연륙교통수단으로 자리잡는다
- 수송능력은 비행기보다 유리하지만 고속열차보다 불리하다
- 곡선구간 중력압력 문제, 안전성 검증 등 실용화 성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
- 금년 7월, 미국 교통부(DOT)는 정부 인프라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교통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
- 미국, 유럽, UAE,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기술개발(한국포함) 및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



그 밖의 쟁점 몇가지



미개척 관광상품 한라산의 하얀 세상



출처: 제주여행이야기 티스토리 <http://jeju-tourstory.tistory.com>



겨울의 한라산을 보라. 아! 과연 어떤 산이 너의 순백의 위엄에 맞설 수 있을 것이며 어느 계절이 너의 겨울과 견줄 수 있겠는가. 겨울은 한라산의 절정이요, 완결이다. 자신 있게 말한다. 겨울의 한라산을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겨울 산의 매력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.



https://cdn.crowdclip.net/detail-thumb/thumb_d_BFA982621F34B7518E06041A7E1960B4.jpg



출처: 서울신문(촬영: 2014.10.17, 하라산 어리목사무소)



<https://pcn.twimg.com/media/CDEn8YzW0AUjHm8?format=jpg&name=med>



https://img.newspim.com/news/2020/05/03/2005031621097240_w.jpg

뉴스 phẩm

https://img.seoul.co.kr/img/upload/2016/01/20/SSI_20160120135909_O2.jpg

예를 들면 1100도로 관광형 모노레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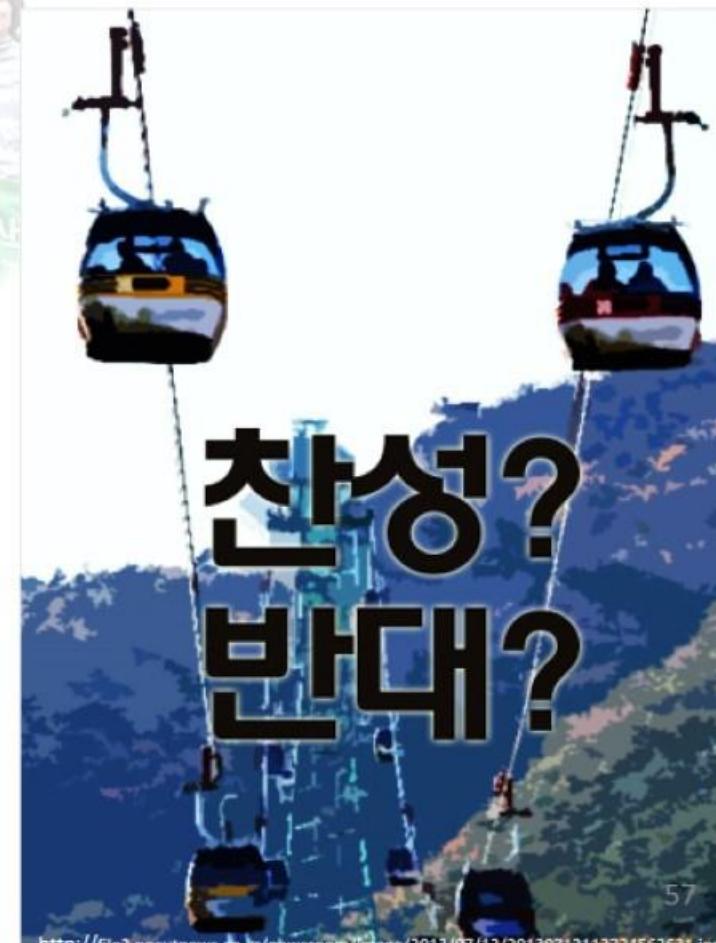
예를 들면 철도기술연구원 제안 산악트램

- 폭설, 결빙 등 기상조건에 무관하게 전천후 운행
- 급경사와 급곡선 등 운행가능
- 도로상 궤도를 전기로 이동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



예를 들면 케이블카와 제주자연의 가치?

“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공법이나 프로그램이 나오면..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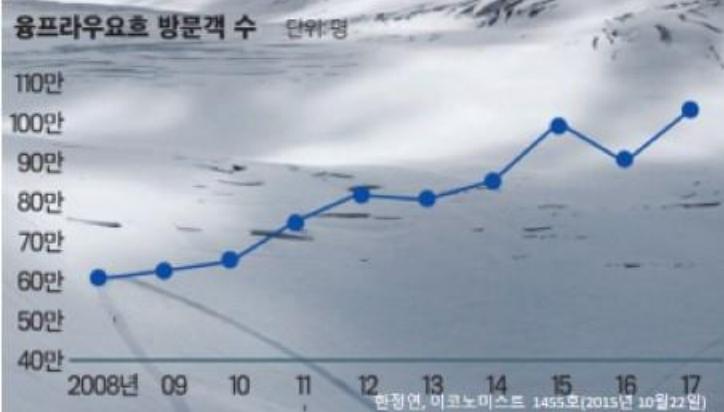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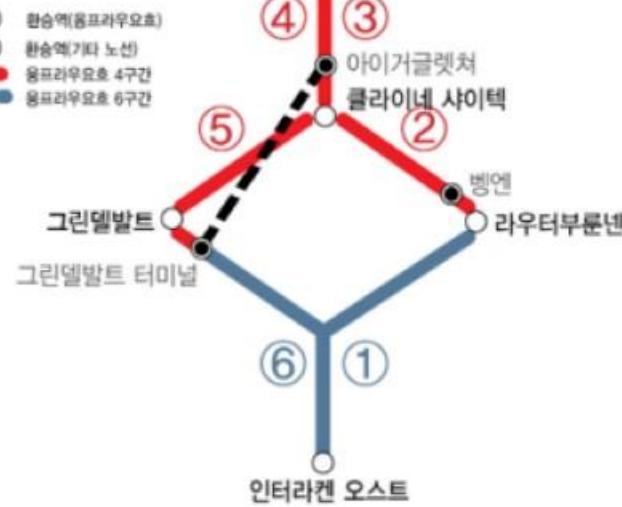


관광국가 스위스에서는

V- 케이블웨이 프로젝트

융프라우요흐 등정 방법

■■■ V-케이블 웨이 프로젝트
2020년 12월 완공



마무리하면서

- 스마트모빌리티로 제주다운 교통을 완성
- 신비의 섬과 성장의 섬, 천혜 자연의 청정 환경과 첨단 문명의 인문 환경을 양립시킬 제주교통
-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의 토대가 될 미래 제주교통



감사합니다



국립 **한국교통대학교**
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

이 창운

초빙교수 / 대학원 (前한국교통연구원장)

16106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(의왕캠퍼스)

T. 031-460-0607 C. 010-8923-3054

E. cleenaver@naver.com

www.ut.ac.kr